

UNCTAD, 중국 세계 최대 컨테이너수송능력 보유

선박 척수와 적재능력에서 세계 1위로 부상

컨적재능력 홍콩, 미국, 싱가포르, 독일 순

중국이 컨테이너선박의 척수와 적재능력에서 세계 1위로 부상했다.

UNCTA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갖추었으며, 이어 홍콩, 미국, 싱가포르, 독일, 영국, 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국이 컨테이너수송 능력에서 수위를 차지한 것은 중국을 기점으로 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대 보유국 10개국을 보면 척수기준으로 중국이 1,228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 1,166척, 미국 1,074척, 싱가포르 916척, 영국 861척, 독일 810척, 네덜란드 785척, 벨기에 774척, 일본 756척, 한국 734척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컨테이너 수송능력에 근거한 세계 10대 순위를 보면, 중국이 393만TEU로 첫수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역시 홍콩 375만TEU, 미국 298만TEU, 싱가포르 247만TEU, 독일 225만TEU, 영국 217만TEU, 한국 211만TEU, 네덜란드 208만TEU, 대만 196만TEU, 일본 192만TEU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접 국가 노선 수량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 7위로 96개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 순위를 보자면 영국 133개, 네덜란드 131개, 벨기에 123개, 독일 114개, 프랑스 105개, 싱가포르 98개 등으로, 유럽이 해운업의 가장 변화하고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정기선 노선은 보통 해운회사 수량의 4배인데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다른 상황이며 모든 해운회사는 평균적으로 6개 이상의 정기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원양 노선은 중국이 최다 보유국이며 863종의 정기선이 있다. 이하 10대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 프랑스가 포함됐다.

中 4개 회사, 1백만DWT 조선소 2008년까지 건설

CSIC Shanhaiguan조선소가 51%의 지분 확보

중국 Hebei성의 CSIC Shanhaiguan조선소, Hebei Cosco, Hebei 건설투자공사, Jianlong철강지주회사 등 4개사는 공동으로 100만DWT급 건조능력을 갖춘 조선설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CSSC Info가 23일 밝혔다.

총 투자비용은 26억위안이며 투자해 Shanhaiguan 조선중공유한공사를 설립, 2008년까지 100만DWT급 조선기지를 건설기로 협의를 체결했다.

신설 업체는 Hebei성 Qinhuangdao에 위치, CSIC Shanhaiguan조선소가 5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신규설비는 Shanhaiguan조선소의 기존 수리 및 건조설비를 이어받아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조선형은 케이프사이즈 벌커가 될 것이며 컨테이너선, 석유제품운반, 벌커 및 LPG선 등도 건조할 예정이다.